

가톨릭 가족계획사업의 의의와 그 내용



가톨릭의대 전임강사 맹 광 호

1. 필요성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의 가족계획 사업은 1961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 정책과 여러 민간 단체의 노력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족계획사업은 그 방법들이 갖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하여 많은 우리 가톨릭 교우들은 물론 전국에 많은 가톨릭 계통의 의료나 교육시설 및 사회단체를 이용하는 많은 비교우들에게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가톨릭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하고 행복된 가정의 형성에 소홀해온 듯한 오해를 일부에서 받고 있으나 실상이 문제에 있어서 가톨릭만큼 진지한 노력을 해온 사회단체도 없다는 것을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가톨릭시습이 부부의 도덕적 양심과 그 교화형성이란 관점에 우위를 두어 왔을 뿐 아니라 “세상의 표징”으로서 (마두복음 8장 33절) 국가와 국민의 「공공부리를 증진시킬 의무」와 그들의 건강, 생명, 재산과 도덕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케 하는데 노력해 왔다는 데 대하여 놀랄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그 중대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1954년 비오 12세는 경제—인구문제에 관하여 가톨릭 신자를 고무하면서 “인구학은 아직 그 초창기에 있으나 그 중요성으로 말하면 막중함 바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지어져 있으며 개인적 혹은 사회적 심각한 제반 문제 중에 어떤 것을 해결하는데 빛을 던져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중략)……그러나 교회는 항상 인구문제를 그 스스로의 진실한 전망 속에서 해결할 방도를 모색해 왔다.

모든 성실한 인구 학자들의 노고가 인구의 진화를 결정하는 법칙과 가치의 인식에 이바지하는 광명에 기쁨의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이야 말로 내가 이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탐구와 노력에 모든 가톨릭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를 바라는 이유이다”라고 언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져가는 인구문제와 가족계획 실천에 있어서 교우들이나 일반이 느끼는 곤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도해야 할 교회 특히 많은 성직자들이 가족 계획에 관하여 알고 있는 지식과 이에 대한 태도는 단지 이를 위하여는 주기 이용법이 쓰여질 수 있다는 것과 이를 통한 책임성 있는 부모라는 견해에 찬성하고 있다는 전통적 가톨릭 입장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에컨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직자는 가족계획에 관하여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뿐 아니라 새로운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들에 대해서도 별반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 가톨릭교회는 이 「행복한 가족」 사업을 통하여 책임성 있는 부모에 대하여 상담 및 교육하고 새로운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을 지도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행복과 번영을 도울 수 있도록 모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여건

한국에 있어서의 가족계획 사업은 여러면에 있어서 그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보는 견해가 옳을 것입니다.

우선 정부가 강력한 정책으로 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반 가족계획사업을 위한 8개의 민간단체가 있어 이들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가족계획 사업에 접할 기회가 많을뿐 아니라 약간의 도서 지방을 제외하고는 각종 「매디아」가 전국에 전달되고 국민의 문맹율이 극히 낮은 편이어서 가족계획사업을 위한 여건은 꽤 좋은 편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를 더 원하는 사회 문화적 습관이나 가족내의 전통등으로 일부 가족계획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최근의 조사통계에 의하면 한국 인구의 95%가 가족계획이란 말을 듣고 보아서 알고 있으며 85%가 이를 지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주된 방법은 가톨릭이 현재 까지 허용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본행복한 가족사업은 3년간의 계획으로 우선 가톨릭 교우와 가톨릭기관을 이용하는 약 160만명을 대상으로 가톨릭적 가족계획 방법을 교육 제공하고 실천토록 지도하고자 하는 것인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은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의 좋은 여건외에 이 사업은 전국에 걸친 교회와 교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 더욱 좋은 여건을

3. 목 표

3개년 계획 가운데 제1차년도에는 우선 성직자들로 하여금 가톨릭적 가족계획방법 지도와 상담을 위한 센타설립에 호응토록 하고 대상 인구에 대한 이 사업의 수행에 교회 요원들이 적극 참여토록 동기 조성에 앞장설 수 있게하는 것이며 이와 아울러 이 1차년도를 통해 다음 2차 3차년도 사업을 위한 기초 작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차년도 사업의 주안점은 첫째 약 3,000여명의 신부와 수녀들을 30회에 걸쳐 각교구별로 하룻 동안의 세미나를 열어 가톨릭적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둘째 제2차년도부터 시작될 행복한 가족사업요원(의사, 간호원, 교회사무장, 사회사업가, 교사, 상담자)의 교육을 위한 「워크샵」과 그 자료 준비 그리고 셋째로 이들 요원들이 직접 대상인구를 교육, 지도, 계몽하는데 필요한 각종 인쇄물이나 교육자료를 준비 제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참조) 2차 및 3차년도 요원 훈련개요

요원의 종류	수	표	회	워크	기간	워크	수
			회	샵	인원	회	수
교회사무장	3,100		50		10일		62
의사, 간호원	1,100		50		5일		22
사회사업가, 교원	345		50		5일		7

1 차 년 도 사 업 계 획 진 행 표

사 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무국 설치	*****											
사무국요원국내훈련		*****										
사무국요원국외훈련			*****									
사무국운영계획 및 확정				*****								
기 초 조 사				*****	*****							
기존 가계 사업과의 제휴				*****	*****							
연구 위원 회 확 충					*****							

성 직 자 세 미 나 준 비				*****	*****	*****													
성 직 자 세 미 나 실 시							*****	*****	*****	*****	*****	*****	*****	*****	*****	*****	*****	*****	*****
교구대표성직자 3 일 [워크샵]							*****												
가계 요원 교육 교재 제작							*****	*****	*****	*****	*****	*****	*****	*****	*****	*****	*****	*****	*****
계몽책자 및 재료 제작							*****	*****	*****	*****	*****	*****	*****	*****	*****	*****	*****	*****	*****
요원 [워크샵] 계획 준비													*****	*****	*****	*****	*****	*****	*****
평 가 (년 4 회)				**			**					**				**			***

4. 세부사업 내용

1차년도 사업을 위해서 먼저 다음과 같은 사무국 요원을 두게 됩니다.

즉 1명의 사무총장, 3명의 훈련[스텔], 1명의 공보 전문가 1명의 사무직원 및 2명의 타자수와 1명의 사환등 9명으로서 먼저 1명의 사무총장을 채용하고 행복한 가족 연구위원회에서 나머지 요원을 선발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게 됩니다.

사무총장은 사업 제 2개월제부터 사무국 요원을 훈련하고 제반준비를 하게되며 제 3개월에 사무총장을 비롯한 3명의 훈련 [스텔]과 공보전문가를 부분적이나마 비교적 자연주기법에 관한 연구와 실천이 앞선 비올빈, 호주 및 캐나다 등에 파견 훈련을 받도록 합니다.

귀국후 제 4개월에 이들은 1차년도 사업을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여 이를 분담하고 동시에 전국의 성직자 의료 요원들을 무작위 추출하여 사업내용과 발전에 관한 질문표를 배부, 수집하여 제 5개월까지 이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강 대학교의 사회문제 연구소 등의 협조를 얻을 계획입니다.

또한 이 4,5개월에 국내 기존 가족계획 사업 단체나 전문가들과 접촉을 갖고 상호 의견 교환과 협조를 모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행복한 가족" 연구 위원회를 보다 확충하여 의학, 신학을 비롯하여 각분야의 자문을 넓힐 계획입니다.

사업 제 4,5,6개월에 성직자 세미나를 위한 교재와 제반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제 6개월에는 각 교구에서 2명씩의 성직자를 본부에 파견하여 3일간의 사전 [워크샵]을 갖게 되는데 이들은 제 7개월부터 시작될 각 교구에서의 성직자 [워크샵]

에 책임적 임무를 띠며 주로 가톨릭적 가족계획에 관한 신학적 상담에 응할 수 있는 확신과 각 교구내에서의 사업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제 7개월부터 12개월제까지 본격적으로 성직자 세미나를 시행케 되는데 한국 가톨릭 중앙협의회에 계획에 따라 전국 약 3,000여 성직자를 상대로 30회에 걸쳐 하루간의 세미나를 각 교구에서 실시케 됩니다.

이 세미나의 내용은 주로 가톨릭적 가족계획에 관한 신학적, 의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지식을 교육하고 토론하여 이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편 제 4개월부터 이미 제 2차년도 사업인 가족계획 요원의 훈련을 위한 준비와 각종 계몽책자와 팜프렛 등을 제작하고 제 10개월부터 훈련계획을 연구 검토하여 12개월제에 이를 확정하게 됩니다.

5. 평 가

사업계획과 진행에 관한 제반 평가를 위해 매 3개월마다 평가회를 가지며 특히 제 4개월에 실시할 가족계획 태도와 지식에 관한 기본 조사를 통하여 2차 및 3차년도 사업의 예산과 활동방향을 세우는데 자료를 삼게 됩니다.

한편 각 교구 단위의 성직자 세미나를 통해서도 이 사업의 효과와 보완점등을 묻게 되는데 이것은 계속되는 세미나에는 물론 2차년도 부터의 요원훈련 및 재료 준비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들 성직자들의 지도밑에 각 요원의 활동이 기대되는 계속사업을 위해 각 성직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조언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